

순백(純白)의 꽃나무

김호준 박사 / 그린과학기술원 원장

추천
5

5. 만첩빈도리

(1) 계통과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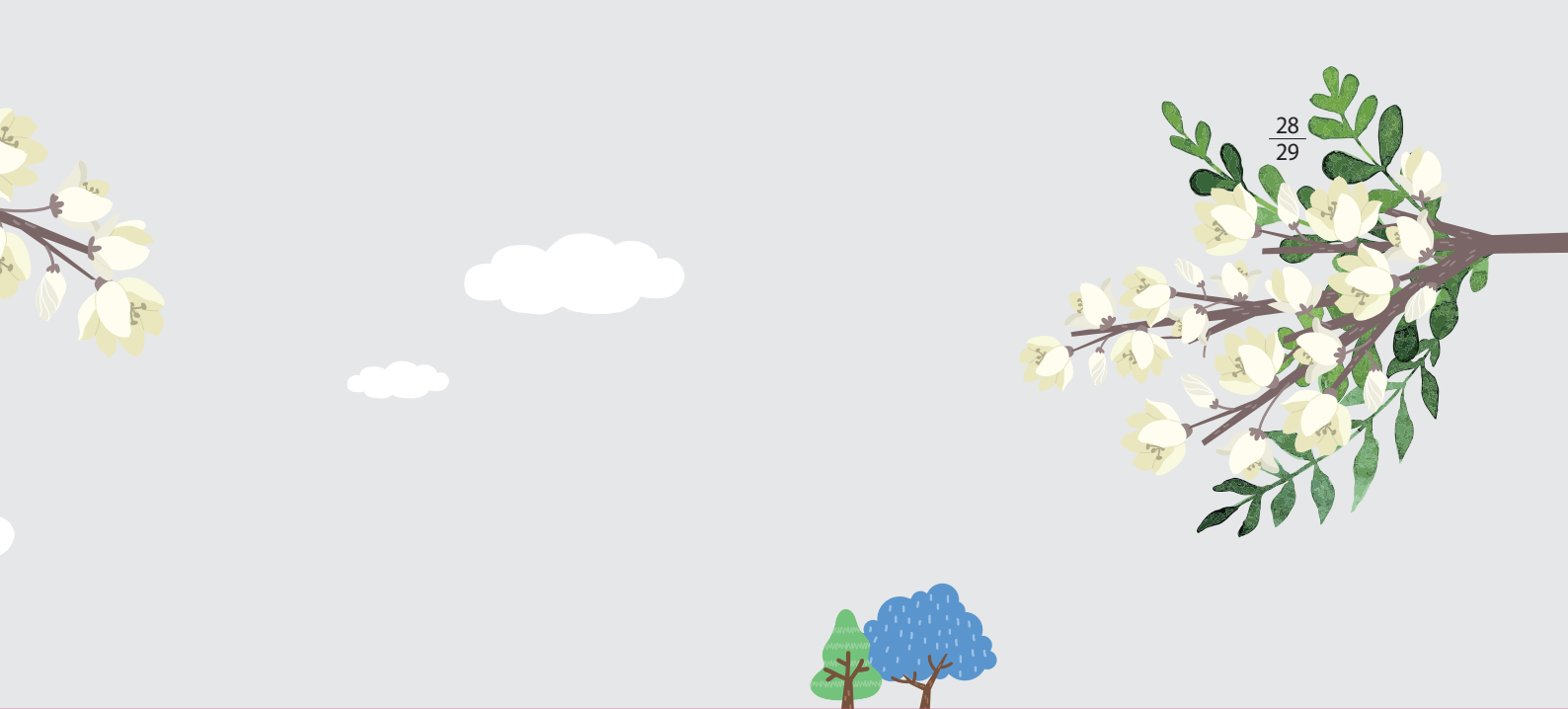
우리나라에 식재 분포하는 말발도리류에는 10여개의 종, 변종, 품종이 있다. 이들 중에서 가장 많이 식재되고 조경수로도 크게 각광받는 나무는 「만첩빈도리」라는 품종이다.

만첩빈도리는 피자식물강(被子植物綱, Angiospermae) 장미목(Rosales) 범의귀과(Saxifragaceae) 말발도리속(*Deutzia*) 빈도리의 한 품종(Forma)으로서 백색의 겹꽃이 화려하게 피는 낙엽활엽관목이다. 말발도리류는 전통적으로 범의귀과로 분류해왔는데, 근래에는 수국과 (Hydrangeaceae)로 수정 분류하기도 한다.

■ 표1. 우리나라에 식재, 분포하는 말발도리류 종, 변종, 품종

종 명	학 명
말발도리	<i>Deutzia parviflora</i> Bunge <i>D. parviflora</i> var. <i>ovatifolia</i> Rehder(이명)
털말발도리	<i>Deutzia parviflora</i> var. <i>amurensis</i> Regel <i>D. amurensis</i> (Regel) AiryShaw(이명)
꼬리말발도리	<i>Deutzia paniculata</i> Nakai
매화말발도리	<i>Deutzia uniflora</i> Shirai <i>D. coreana</i> var. <i>triradiata</i> (Nakai) Hatus(이명)
바위말발도리	<i>Deutzia grandiflora</i> Bunge var. <i>baroniana</i> (Diels) Rehder <i>D. prunifolia</i> var. <i>latifolia</i> Nakai(이명)
빈도리	<i>Deutzia crenata</i> Siebold & Zucc. <i>D. naseana</i> Nakai(이명)
만첩빈도리	<i>Deutzia crenata</i> for. <i>plena</i> Schneid.
물참대	<i>Deutzia glabrata</i> Kom. <i>D. glaberrima</i> Koehne(이명)
애기말발도리	<i>Deutzia gracilis</i> Siebold. & Zucc.
둥근잎말발도리	<i>Deutzia paniculata</i> Nakai

※ 자료 :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



■ 표2. 식물분류 약어(국제식물 명명규약)

약 명	전체 명	한국명
Var.	Varietas	변 종
For.	Forma	품 종
Hyb.	Hybrida	잡 종
Cul.	Cultivar	재배종

(2) 이름의 유래

- 말 발 도 리 : *Deutzia parviflora* Bunge
- 빈 도 리 : *Deutzia crenata* Siebold & Zucc.
- 만첩빈도리 : *Deutzia crenata* for. *plena* Schneid.

빈도리를 포함하여 말발도리 꽃은 5월 하순에 시작하여 6월이면 만개한다. 꽃잎이 아래를 향해 벌어진 꽃송이는 종(鐘)의 모습이 연상되고 9월에 익는 열매는 말의 발굽을 닮아 이름도 「말발도리」다.

대부분의 나무줄기는 속이 꽉차있는 목질부인데, 빈도리 줄기는 속이 비어있어 비었다는 형용사 「빈」이 붙고, 여기에 말발도리 꽃과 비슷하여 「도리」가 붙어 「빈도리」가 되었다. 말발도리와 빈도리는 모두 홀꽃인데, 「만첩빈도리」는 여러 장의 꽃잎이 포개지듯 겹으로 핀다는 뜻의 「만첩」이 붙어 지어진 이름이다.

(3) 형태적 특성

① 줄기와 가지

수고 3m에 이르고 지표에서 여러 개의 줄기가 나와 자라서 덩불모양을 이룬다. 어린 1년생 가지는 적갈색이고 여러 갈래로

기술정보

갈라진 별모양의 털(星毛, 성모)이 있으며, 묵은 가지는 검은빛이 도는 회색인데 껍질이 벗겨진다. 줄기는 속이 비었다.

② 잎

잎은 마주나기(對生, 대생)하고 계란형(卵形)~넓은 화살촉모양(披針形, 피침형)이다. 길이는 3~6cm, 폭은 1.5~3.0cm이며 끝이 점점 뾰족해지는 모양(漸尖頭, 점첨두)이고 기부는 서서히 좁아지는 비대칭 둥근꼴이다. 가장자리에 잔 톱니(鋸齒, 거치)가 있으며, 표면은 녹색이고 뒷면은 연한 녹색이며, 양면 모두 여러 갈래로 갈라진 별모양의 털(星毛, 성모)이 있다. 잎자루(葉柄, 엽병)는 길이 3~5mm이고 성모가 있다.

■ 만첩빈도리 햇가지의 잎



■ 만첩빈도리 묵은 가지의 잎



③ 꽃과 열매

꽃은 긴 꽃대에서 여러 개의 꽃송이가 어긋나게 붙고 개화는 아래서 시작하여 위쪽으로 피는 총상화서(總狀花序)로서 5월 하순~6월에 밑을 향해 핀다. 종 모양의 흰 꽃은 봉오리에 성모와 짧은 털(短毛, 단모)이 함께 있고 여러 장의 꽃잎이 겹쳐 피는 만첩 꽃이다. 꽃잎은 길이 15mm 정도이고 성모가 있으며 안쪽에는 털이 없다.

10개의 수술대(花絲, 화사)는 가늘고 암술대(花柱, 화주)는 3~4개다. 열매는 지름이 3~6mm로 둥글고 각각의 방에 종자가 들어있는 구조의 삭과(蒴果, capsule)로서 성모가 발생하고 끝에 암술대가 남아있다.

(4) 생리·생태적 특성

내한성이 강해 경기북부에서도 조경수로 쓸 수 있으며, 내 공해성도 약하지 않아 도시공원이나 하천의 산책로 주변식재에 어울리는 나무다. 내염성이 강해 갯가에 연한 주택 조경수 및 공원수로도 좋고 이식력과 전정에 강하고 생장속도가 빨라 신속 택지의 넓은 공간에 무리지어 심어도 좋다.

■ 종모양의 만첩빈도리 꽃



■ 긴 꽃대에 개화한 만첩빈도리 꽃



■ 만첩빈도리 분홍꽃잎



■ 말발굽 닮은 빈도리 열매. 남은 암술대



■ 만첩빈도리 꽃. 앞. 햇가지. 묵은 가지



■ 표3. 생리·생태적 특성

내 한 성	강	내 염 성	강	전정 적응력	강
내 건 성	강	내공해성	중	이 식 력	강
내 음 성	중용	맹 아 력	강	생장속도	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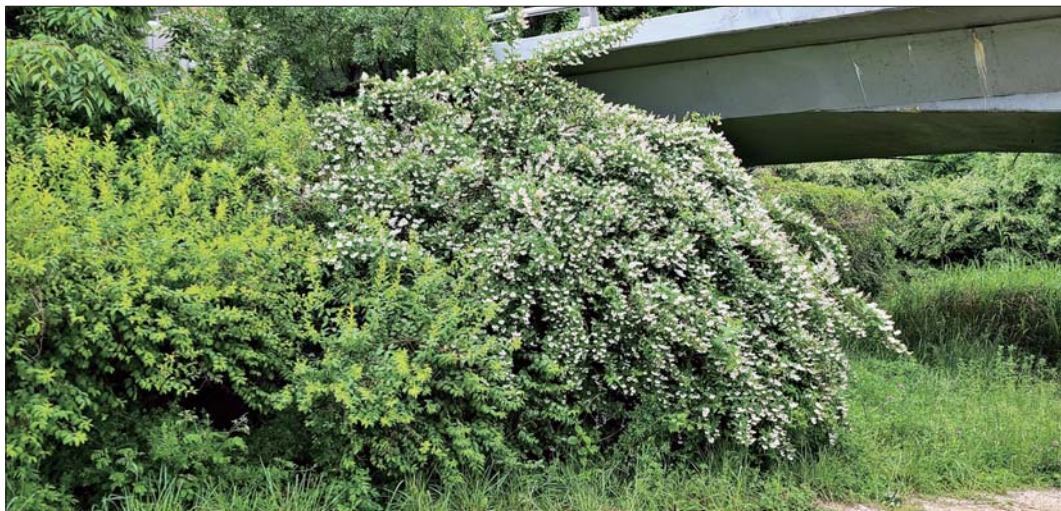
(5) 조경소재로의 이용

① 주목(主木) 식재

꺾꽂이(挿木, cutting)가 잘 되는 수종으로서 대량생산이 가능하며 생장속도가 빨라 화목(花木) 녹지조성에 어울리는 나무다. 특히 구석진 곳의 은폐가 필요한 곳이나 넓은 공지에 여러 대를 모아심기 하여 둥글고 큰 덩굴을 만들면 주목(主木)으로도 가능하다.

덩굴 식재는 3~5주를 30~50cm 간격으로 3~5각형 또는 원형으로 식재하거나 공지의 넓이에 따라 식재 본수와 간격을 넓히면 더 큰 덩굴을 형성시킬 수 있다. 식재 구덩이에는 보습·보비력이 좋은 이탄토 성질의 완속 부산물비료를 넣고 식재 후 끝을 다듬어 새순이 나오도록 자극하면 2~3년 내에 덩굴을 형성한다. 덩굴이 형성되면 수형 잡기용 다듬기를 하여 가꾸면 경관미가 큰 주목(主木)이 된다.

■ 덩굴모양의 만첩빈도리 자연수형



② 도로변 식재

도로변, 특히 곡선으로 굽은 도로에서는 바깥 가장자리를 따라 열식(列植, Row planting)하면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여 도로의 안전성을 높이고, 만개한 백색의 꽃은 보행자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도로변 열식은 식재 시작점에서 도로가 굽어서 돌아가는 길의 끝에까지 이르도록 식재하여 곡선 도로의 시선유도 역할이 완결되도록 한다. 식재는 30cm 폭의 도랑을 길게 파고 20~30cm 간격으로 엇갈리게 배열하면 생울타리 기능이 발휘되어 심리

적 안정성이 확보된다.

법면과 이어지는 도로에서는 도로와 법면 사이의 차단벽 상단에 식재하여 줄기가 도로 방향으로 늘어지게 키운다. 늘어난 줄기와 가지는 현애(懸崖) 수형을 이루어 교각에서 분수되는 폭포를 연출한다.

■ 만첩빈도리 도로변 시선유도 식재



■ 교각에서 떨어지는 폭포가 연상되는 차단벽 상단 만첩빈도리 식재



③ 경사지 완충식재

경사면 아래쪽에 넓고 두껍게 식재하여 경사면의 안전과 심리적 안정감이 있도록 한다. 경사면의 완충식재는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운동 에너지를 흡수하여 서서히 감속시킴으로써 정지토록 하는 식재기법으로서 경사면의 쿠션(cushion) 식재다.

미국 도로국에 의하면 찰레나무를 120cm 간격으로 2줄을 식재하고 5년이 경과되어 높이 150cm에 이른 곳에서 차량속도 64km/hr로 돌진한 실험을 하였다. 이 실험에서 찰레나무 생 울타리를 뚫고 나간 차량의 속도는 8km/hr로 감속되었고 운전

자나 차량에는 아무런 피해가 없었다고 한다.

골프코스 티 경사면 하단에 식재된 만첩빈도리는 경사면 예초 작업자의 안전성 확보에 도움이 된다. 완충식재는 쿠션(cushion) 식재로서 충돌의 속도를 감소시켜 충격을 완화함으로써 손상을 적게 한다. 관리 작업의 안전성보다 더 큰 것은 골프 플레이가 지연될 때 플레이어(player)가 꽃을 감상할 수 있어 심미적이고 여유로움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

■ 티 주변 경사지 만첩빈도리 덩굴 형 쿠션식재



김호준 박사
그린과학기술원 원장